

# 대상에 전통 노영문·한국화 선정미씨 등 수상 영예

## 『제39회 광주시 미술대전』 입상자 발표

15개 부문 출품작 1507점 접수, 대상 4점 등 814점 입상  
수상작展 시상식과 함께 23~2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전통미술 대상 노영문 작 '수월 관음도'

미래 광주·전남화단을 이끌어갈 신에 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광주시 미술대전' 입상자가 가려졌다.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이하 광주미협·회장 이병오)는 전국 각 지역 고른 연령층에서 출품된 '제39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심사를 지난 4월 23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한 결과,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입선 등 15개 부문 입상자가 가려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미술대전은 제38회 대전에 총 1386점이 출품된데 비해 올해는 1507점이 접수돼 121점이 넘는 등 소폭 증가했다.

최대 공모분야는 한문서예가 378점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그 뒤를 이어 전통미술 민화가 253점, 문인화가 168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미술대전에는 전통미술과 한국화, 문인화, 서예 한문 등 4개 분야에서 대상을 배출했다. 대상 4점을 비롯해 최우수상 8점, 우수상 36점, 특선 241점, 입선 525점 등 총 814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는 대상 5점을 포함해 최우수상 10점, 우수상 30점, 특선 241점, 입선 480점 등 총 766점이 입상작으로 뽑힌 반면, 올해는 대상 1점과 최우수상은 2점이 줄었으나 우수상은 6점이, 입선은 45점이 늘었다. 특선은 지난

해와 같았다. 전체적으로 48점이 늘었다. 서양화 장르에서 대상이 배출되지 못한 점은 의외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전통미술 장르에 '수월 관음도'를 출품한 노영문(71)씨, 한국화 장르에 '지붕 위의 시간'을 출품한 선정미(49)씨, 문인화 장르에 '매화'를 출품한 김민철(64)씨, 서예한문에 '백운거사 시'를 출품한 유두석(76)씨 등이다.

대상 수상자는 광주 3명, 전남 1명이었다. 전통미술과 한국화, 문인화 장르가 광주 출신자들이었고 서예한문 장르가 전남 양성 출신자였다.

다만 올해 광주시미술대전은 공모 장르 중 14개 부문에서 작품 접수가 이뤄진 반면, 판화 부문은 단 1점도 접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시미술대전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단 1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는 광주시미술대전 운영 규정에 따라 작품성과 창의성, 조형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단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작품의 창의성과 예술적 완성도는 물론, 작가만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엄격히 평가한데 이어 서예, 문인화, 캘리그래피 부분의 경우, 지난 2일 특



한국화 대상 선정미 작 '지붕 위의 시간'

선 이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장 취재를 실시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오건규 심사위원장은 "올해 출품작들은 전반적으로 신진 작가들의 패기 넘치는 실험정신과 중견 작가들의 깊이 있는 예술적 성찰이 조화를 이뤘다"며, "광주 미술의 미래를 밝힐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미술대전 총평을 통해 이병오 회장은 "참신하고 유망한 신인 작가 발굴의 산실인 광주시 미술대전에 참여해준 모든 예술인에게 감사드리

다"며 "이번 전시가 예향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과 예술로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분야별 대상 4명에게는 각 5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8명에게는 상금 각 200만원이, 우수상 36명에게는 상금 각 50만원이 주어진다.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고, 입상작품 전시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동일 장소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5·18의 기억... 여성의 몸과 목소리 통해 상기

### 오월미술제, 27일까지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등 실천·연대 방식 조망... "새 민주주의 감각 제언"

5·18의 기억이 올해는 여성의 몸과 목소리를 통해 다시 호출된다.

2026 오월미술제 '등장'(When Bodies Appear)이 오는 27일까지 광주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미술제는 '파시즘에 대항하는 여성'을 주제로, 오월미술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시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출발한다. 동시에 최근 광주 정치의 주요 주체로 등장한 2030 여성들의 실천과 연대의 방식까지 함께 바라본다. 과거의 침묵과 현재의 움직임의 하나를 흐름으로 연결한 셈이다.

주 전시인 '발화'는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에서 열린다. 신학교 기숙사였던 공간의 지하와 3층을 활용한 전시는 국가폭력과 젠더폭력의 기억을 예술 언어로 풀어낸다. 5·18 성폭력 피해자 단체인 '5·18 열매'와 예술가들이 함께한 작업들이 중심축이다.

김미련 작가의 '풍경의 좌표\_광주'는

피해 장소와 그 시간을 기억해온 식물과 사물을 스캐노그래피로 기록했다. 방정아 작가의 '우리들의 강강술래'는 거대한 설치 작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공동체의 몸짓으로 확장한다. 김현주·조광희의 '세 개의 시간'은 피해자들의 구술을 관람객이 직접 낭독하도록 구성했다. 증언은 더 이상 기록물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목소리가 된다.

전시는 현재진행형의 폭력에 외면하지 않는다. 데이터폭력과 온라인 성착취, 제주4·3과 대구 10월항쟁 등 시대를 달리하는 폭력의 흔적들이 한 공간 안에서 교차한다. 모두 23명의 작가와 '5·18 열매'의 아카이브 자료가 참여한다.

또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는 두 번째 전 시 '회절'은 여성적 연대와 돌봄의 감각에 주목한다. '회절'이라는 개념처럼 빛이 장애물을 만나 꺾이고 퍼져나가듯, 약함과 상호의존의 감각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혜옥 작가는 '포라이 되쳐부', '데이트 폭력 방치부', '정시 퇴근부' 등 목판화 부채 시리즈를 선보인다. 일부 작품은 QR코드를 통해 시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는 시민참여형 인터랙티브 작업과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참여한다. 박철우의 '금남로의 돌', 이광의 '어머니에게도 향하는 대문', 이윤영의 판화 연작 등도 함께 전시된다.

미술제는 전시장 밖 광장으로도 이어진다. 지난 16일 금남로에서는 라이브 퍼포먼스 'Pulse: Now'가 성황리 열렸다. 작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민주주의의 감각을 현재의 거리로 불러낸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등장의 미학: 발화하고 회절하는 여성과 예술'을 주제로 학술포럼도 진행됐다.

김신준주 예술감독은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5년의 침묵 끝에 세 상 앞에 등장했다"며 "이번 미술제는 서예물을 만나 꺾이고 퍼져나가듯, 약함과 상호의존의 감각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황혜은 기자 nab@gjdream.com



## 공감·용기의 흥길동 활빈당 '어린이 국악뮤지컬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흥길동이 세상을 떠돌며 극이 시작된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던 그는 길 위에서 우연히 갑쟁이와 울보, 먹보로 이뤄진 산적 무리를 만나고, 이들과 힘을 합쳐 새로운 공동체 '활빈당'을 만든다. 이후 탐욕스러운 사모와 거짓으로 배성을 괴롭히는 빌린 삼인방에 맞서 정의를 실현해나간다. '흥길동 활빈 헌터스'는 단순한 권선하게 다가간다.

사단법인 청강창극단이 오는 22일 오전 11시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일 어린이 국악뮤지컬 '흥길동 활빈 헌터스'가 그것이다. 이번 공연은 2026 전남문화재단 공연장협력예술단체지원사업 선정작이자 청강창극단의 올해 레퍼토리 공연으로 마련됐다.

작품은 한국 고전문학의 대표작인 '흥길동전'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 고전의 서사를 유지하면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유쾌한 연출과 국악적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재구성했다. 특히 창극과 판소리에 현대적인 무대 감각을 결합해 어린이들이 쉽고 흥미롭게 전통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서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

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흥길동이 세상을 떠돌며 극이 시작된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던 그는 길 위에서 우연히 갑쟁이와 울보, 먹보로 이뤄진 산적 무리를 만나고, 이들과 힘을 합쳐 새로운 공동체 '활빈당'을 만든다. 이후 탐욕스러운 사모와 거짓으로 배성을 괴롭히는 빌린 삼인방에 맞서 정의를 실현해나간다. '흥길동 활빈 헌터스'는 단순한 권선하게 다가간다.

공연 제작진 역시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예술감독과 작장은 국 가무원문화재단 제5호 판소리교보 이수자인 박세연 청강창극단 대표가 맡았다. 극작과 연출은 창극 '우리네', 연극 '해변의 길손',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등을 선보인 안치선씨가 맡아 특유의 해학과 호흡을 무대에 녹여낸다.

음악감독 및 작곡은 기타리스트 박석주 주주스프로젝트대표, 안무는 한국무용사협회 이사김선영 교수(국립대 문화예술콘텐츠)가 맡아 선율과 동선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흥길동은 박준현, 갑쟁이 대장 역은 강승명, 울보도적 역은 김은찬, 먹보도적 역은 김주은, 욕심 사모 역은 정승기, 불량 요리사는 심다성, 헛똑똑이 역은 유윤하, 흥판서·할머니 역은 박세연, 달래 역은 강은솔씨가 맡아 극의 흐름을 이끈다. 악사로는 기타 박석주, 타악 김동원, 피아노 노미연, 대금·소금 임성에 등이 참여해 국악과 현대 악기의 조화를 들려줄 예정이다. 입장료는 전남도민의 경우 8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석 5000원. 사전예약 필수.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2026 오월미술제 '등장'(When Bodies Appear)이 오는 27일까지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과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올해 미술제는 '파시즘에 대항하는 여성'을 주제로, 오월미술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진은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전시 전경.